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한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유형에 따른 소진평가

Burnout Evaluation according to the Parenting Stress Types of Respiratory Disease Child's
Mother who Visits Pediatrics Clinic

Min Hyang Park *

Department of Nursing,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10 Deogam-gil, Naesu-eup,
Cheongwon-gu, Cheongju, Chungbuk, Korea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 management plan to decrease exhaustion by mothers of children with respiratory diseases by type. When the treatments and nursing of respiratory disease child are not properly managed, it could bring serious complications and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nursing intervention development targeting the mother of respiratory disease child. Regarding study subjects, surveys were executed to identify the parenting stress and burnout targeting the mothers of respiratory disease child who visited pediatrics clinic in C-do. In order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burnout,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and to identify the influences of the variable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Study results showed the ages, month income and parenting stress of respiratory disease child's mother significantly affected the exhausted state, passive attitudes, exhaustion, entire burnout which are the sub-factors of burnout and didn't significantly affect the loss of self-confidence. Non-maternal parenting stress didn't significantly affect the exhausted state and loss of self-confidence which are sub-factors of burnout, but significantly affected the passive attitudes and exhaustion. Therefor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of respiratory disease

* The 1st author. Tel. +82-43-210-8292 E-mail: jalhanda98@chsu.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an. 24, 2015 / Revised: Mar. 4, 2015 / Accepted: Mar. 16, 2015

child is considered to be bigger than that of ordinary mother. Because the degree of influences to burnout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parenting stress types, it is suggested to prepare for the management plans to reduce the burnout according to the parenting stress types and to strengthen social support system.

Key words: respiratory disease, mother, parenting stress, burnout

국문초록

이 연구는 호흡기질환을 가진 환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소진을 감소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호흡기 질환 환아의 치료와 간호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였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질환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은 C도에 소재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한 호흡기질환 환아 어머니로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양육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호흡기질환 환아 어머니의 연령, 월수입, 직업유무 통제 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소진의 하위변인 지친상태, 소극적 태도, 고갈, 전체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상실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양육스트레스는 하위변인 지친상태, 자신감상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소극적 태도와 고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흡기질환을 가진 환아 어머니에게서 일반 어머니보다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도는 더 과중 된다고 사료되며, 양육스트레스 유형에 따라서도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므로 양육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소진을 감소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호흡기질환, 환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소진

1. 서론

호흡기질환은 소아의 급성 호흡기 감염 중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차지한다. 특히 소아가 어릴수록 면역기능이 미성숙하고, 기관에서 종말 세기관지까지 호흡기구조 사이의 간격이 짧다. 호흡기 부속 근육의 발달이 완전하지 못하고, 기침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유아기의 어린 아동은 호흡기 감염에 민감하다(홍창의, 1997; Whaley & Wong, 1999).

호흡기질환은 이환율 및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다. 특히 5세 미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조사 되었다(Mathers, *et. al.*, 2006). 소아 호흡기 감염에서 대부분의 원인은 바이러스로 respiratory syncytial virus(RSV)와 human metapneumovirus(hMPV)가 그 중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Papenburg, *et. al.*, 2012). RSV는 1956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paramyxoviridae 과(family), pneumovirinae 아과(subfamily), pneumovirus속(genus)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다. RSV는 급성세기관지염으로 입원하는 환아에서 가장 흔한 원인 바이러스이다(Boyce, *et.*

al., 2000). hMPV는 2001년 처음 발견되었으며, paramyxoviridae 과 pneumovirinae 아과, metapneumovirus 속에 속하는 RNA바이러스이다(Hoogen, 2001). RSV와 hMPV는 상기도 감염 및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폐렴 등의 하기도 감염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고 임상 양상은 두 바이러스 감염 간 비슷하거나5) RSV에 의한 감염이 중증도가 더 높다고 보고된 적이 있다(Freymouth, et al., 2003).

호흡기질환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내원하는 환아는 30-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아입원 환아의 25-30%를 차지한다. 호흡기 질환에 걸린 소아는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쉽게 회복되어 정상적인 기능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관지 폐렴, 무기폐, 기도폐쇄 등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입원관리를 받는 경우 교차감염과 2차 세균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퇴원 이후에도 재발률이 높은 특성이 있다(안효섭, 2005). 특히 양육의 1차 책임자의 어머니는 야간 발열, 끊임없는 기침, 식욕저하 등 환아가 평소와 다르다면 아동을 돕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당황스러워하고, 이러한 증상의 악화로 아동의 안녕 상태가 위협받을 수 있음에 대해 불안해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위의 도움 없이 아픈 호흡기질환 환아를 어머니 혼자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욱이 환아를 돌보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부추기는 자극원이 되어 어머니에게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가중시킴으로써 역량감에 회의를 느끼고,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위축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임원균 외, 2011). 이런 역할이 가중되어 호흡기질환 환아 외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 또한 소홀할 수 없으므로 그 부담감이 일반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가 지배적이고, 어머니는 자아실현의 욕구와의 갈등을 통해 자녀양육과정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 박영숙 외(2009)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기능이 나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란 가족스트레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요인으로,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정도나 부담감이며 가족생활의 발달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인 바, 자녀의 기질 및 성별, 연령과 같이 자녀가 가지는 특성, 어머니의 연령, 학력 등 어머니와 관련된 특성 및 상황 관련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Abidin, 1992). 안지영(2000), 이지원(2003) 등이 자녀의 성, 출생순위 및 건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반면 많은 연구들은 자녀의 연령(안지영, 2000; 장운원, 2000), 성별(신숙재, 정문자 1998; 천희영, 1992), 출생순위(김문경, 2002; 류기자, 2006; 송미혜, 2006; 안지영, 2000), 기질 및 건강(김문경, 2002; 류기자, 2006; 이지원, 2003)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달라짐을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자녀양육에서 겪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심리적 적응 및 자녀와의 관계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된다(Lazarus & Folkman, 1984). 높게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환아 어머니는 소진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소진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과부하 됨을 느끼고 양육스트레스로 지쳤다는 느낌을 갖는 정서적 고갈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비인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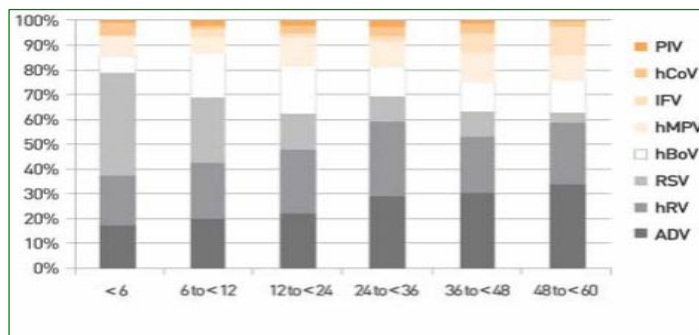
으로 대하거나 냉담하게 대하기도 하며, 자존심이 결여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Maslach, 1982).

호흡기질환을 가진 환아 어머니에게서 일반 어머니보다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도는 더 과중 된다고 보며, 양육스트레스 유형에 따라서도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므로 양육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소진을 감소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문헌고찰

1. 호흡기 질환

소아의 호흡기는 큰 아이들이나 어른들과 비교하여 볼 때 폐포 표면적과 기도의 내경이 작으며, 말초기도 저항이 증가되어있다. 또한, 기관지 평활근의 양이 적고 발달이 미숙하며, 기도내의 점액선의 밀도가 높고 횡격막근의 근섬유 중 피로를 이겨낼 수 있는 근섬유의 비율이 낮다. 이러한 이유로 소아들은 호흡에 중요한 환기와 확산에 장애를 받기가 쉽고 호흡근도 미숙하며, 피로하기도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홍창의, 2002). 호흡기감염은 소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의 하나로, 콧물이나 기침, 인후염과 같은 상기도 감염증뿐만 아니라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과 같은 하기도감염증을 포함한다. 중증의 하기도 감염증은 소아에서는 주요한 사망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임상적인 특징에 대한 조사와 진단, 정확한 원인 병원체에 대한 판별이 중요하다. 이러한 호흡기감염증의 원인으로는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에서는 세균보다는 바이러스의 단독감염, 세균과 바이러스의 동시감염이 더욱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다(Michelow, *et. al.*, 2004). 김유진(2010)은 호흡기질환을 연구한 결과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6개월 미만의 환자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바이러스 분포에 큰 차이는 없었다, 1세 미만 특히 6개월 이전에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의 감염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의 감염빈도

그동안 알려져 있던 사실과 일치하는 조사결과로, 본 연구에 의해서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영아의 모세기관지염의 주요 원인바이러스로 나타났다. 반대로 아데노바이러스(ADV)의 경우는 1세 미만의 영아보다는 2세 이상에서의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2010년에 아데노바이러스(ADV)가 유행성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의 단체 생활을 하는 연령에서 좀 더 많은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호흡기질환에 걸린 환자 어머니는, 특히 소아 호흡기 질환에 자주 이환되는 학령전기 아동에 대한 호흡기 질환 예방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손지영 외, 2008).

2.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란 부모 역할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순간적으로 발생한다(이정순, 2003). Abidin(1990)은 부모 역할 수행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로 지각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으며 부모들은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는데 불만을 느끼며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심리적 부담감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장시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어머니로서 모성경험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며 정신건강과 생활전반에 영향을 끼쳐 분위기를 어둡게 만든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주로 자녀 양육과 연관되며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으로 지각되는 정서로(이정희, 2000) 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자녀와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미숙, 2005). 환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김자윤 외(2002)는 소아정신과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양육스트레스는 진단과는 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아동의 문제가 내재화 증상이든 외현화문제이든 상관없이 부모가 인지하는 환자의 증상정도가 심할수록 스트레스와 높은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소진

Freudenberger(1974)가 중독자들을 상대로 일하는 치료자들이 일에 대한 의욕을 잃고 환자를 냉담하게 대하는 심리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소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Corey & Corey(2002)는 소진을 우울감과 고립감, 도덕적인 상실감, 생산성과 대처 능력의 감소, 냉소적 태도와 이상, 신뢰와 원기 부족 등으로 장기간의 대인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정서 정신적 피로상태라 정의했다. 또 윤희미(1991)는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랐지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부정적인 영향과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냉소적이며 경직성 및 포기하는 등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신체 정서적 탈진현상을 소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Cherniss(1980)는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을 정서적 고갈과 행동 변화로 드러내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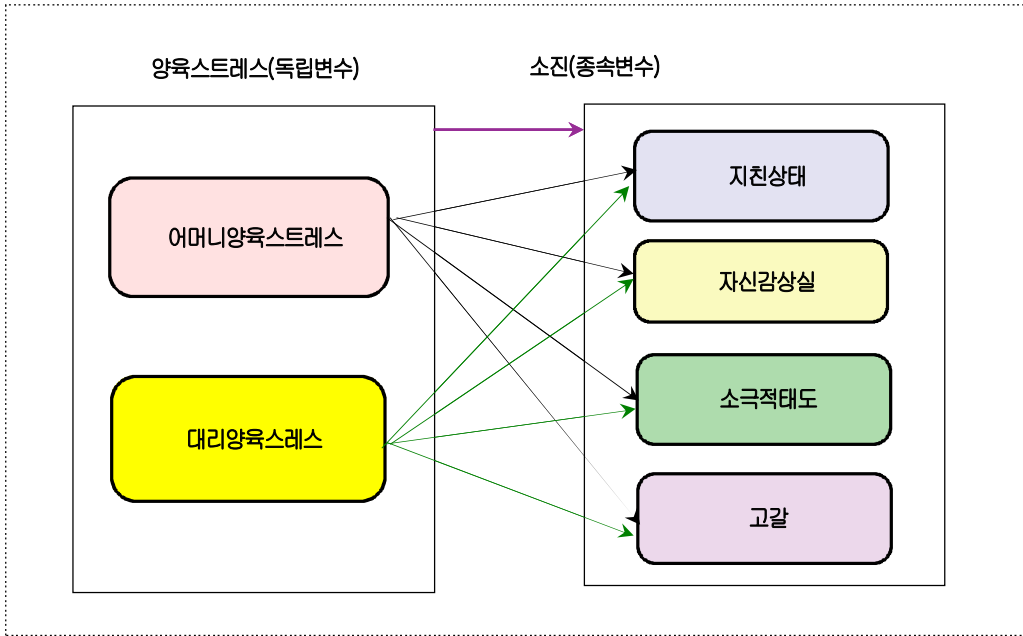
라고 소진을 해석하고 과업에 대한 에너지가 손실되고 수행이 저하되며 심리적인 고통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Skovholt(2001)는 소진을 의미의 소진과 돌봄의 소진으로 구분하였다. 의미의 소진은 정서 발달과 지적 성장, 신체의 안녕과 같은 영역에서 타인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에 대해 의미가 없을 때 생기는 것이다. 돌봄의 소진이란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장애아를 돌보아야 하는 관계의 특성상 어머니는 돌봄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돌봄을 계속해야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진을 말한다. 소진에 대해서 McCarthy(2007)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실망하고 대처할 수 없는 상황들이 늘어나면서 부모로서 힘든 모든 일들에 대해 에너지를 회복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Maslach(1982)는 소진이 스트레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계속 축적되면서 서서히 나타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소진에 대해 연구된 바에 의하면, 소진은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간호사의 소진과 영향요인을 연구한 박재순(2002)의 연구에서 소진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는 업무 스트레스의 지각정도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났고, 이해력과 관리능력, 의미부여로 측정되는 통합성은 소진과 높은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강인성이 낮고, 직업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오(2011)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소진현상은 어머니의 낮은 냉담수준과 높은 자존감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애정적으로 양육하며, 자녀에게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호흡기질환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한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유형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로는 어머니양육스트레스, 대리양육스트레스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인 소진은 지친상태, 자신감상실, 소극적 태도, 고갈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2> 연구모형

1)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

가설 1.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소진(지친상태, 자신감상실, 소극적 태도, 고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지친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감상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소극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고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나이, 최종학력, 월수입, 직업유무 통제 후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

가설 2.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유형은 연령, 최종학력, 월수입, 직업 유무, 통제 후 지친상태, 자신감상실, 소극적 태도, 고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유형은 연령, 최종학력, 월수입, 직업 유무 통제 후 지친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유형은 나이, 최종학력, 월수입, 직업 유무 통제 후 자신감상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연령, 최종학력, 월수입, 직업유무 통제 후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형

은 소극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연령, 최종학력, 월수입, 직업 유무 통제 후 호흡기질환 환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형은 고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 설계 및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은 호흡기질환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한 환아 어머니로 본 연구의 목적을 듣고 동의한 어머니이다. C도에 위치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병원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협조를 구하였다.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대상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설문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총 1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중 자료가 부실한 34부를 제외하고 106부를 연구 결과로 분석하였다.¹⁾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변수는 환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이다.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은 각 차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들 차원을 포괄하는 광의의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양육스트레스의 척도는 Abidin(1990)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지수(Parenting Stress Index: PSI)의 부모영역 요인, Crnic & Greenberg(1990)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Parenting Daily Hassles: PDH), Mann & Thornberg(1987)의 어머니 죄책감정도(Maternal Guilt Scale: MGS)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게 개발한 김기현·강희경(1997)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32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5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41이었다. 소진측정은 Maslach & Jackson(1981)의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한은아(2010)가 번안하여 사용한 15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1)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Park(2014)의 The Effect of Mother's Health Promoting Behavior for Infants and Toddlers on Parenting Burnout.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분석을 하였다.

III. 기초통계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34(32.1)%, 31-40세가 67(63.2)%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졸 40(37.7)%과 대졸62(58.5)% 소지자였다. 취업모가 29(27.4)%, 비취업모가 77(72.6)%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가족수입은 200만원 미만인 38(35.8)%, 200-300만원이 18(17%), 301-400만원이 18(17)%, 400만원 이상이 8(7.5)%로 나타났다. 환자 성별은 남아가 52(49.1)%, 여아가54(50.9)%로 나타났다.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환자 연령은 1-12개월이 42(39.3)%, 13-24개월이 37(34.6)%, 25-36개월이 27(25.2)%로 나타났다.²⁾

2. 양육스트레스와 소진

어머니양육스트레스가 2.882±.733점, 자신감 상실이 2.732±.513점, 지친상태가 2.695±.635점, 대리양육스트레스가2.662±.739점, 고갈상태가2.66±.514점, 양육스트레스가 2.659±.723점, 소진전체가 2.609±.389 점, 자녀 돌봄에 소극적이고 관심 줄어든 상태가 2.214±.597점으로 나타났다.

<표 1>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정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2.882	.733
	타인 양육스트레스	2.662	.739
	전체 양육스트레스	2.659	.723
소진	지친상태	2.695	.635
	자신감 상실	2.732	.513
	소극적 태도	2.214	.597
	고갈상태	2.660	.514
	소진전체	2.609	.389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소진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의 항목에 대해서는 척도 간 상관관계인 요인적재치가 .40 이하인 항목은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며, 요인의 구분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 1이상을 요인으로 추출되도록 하였고, 요인분석방법은

2) Park(2014)의 The Effect of Mother's Health Promoting Behavior for Infants and Toddlers on Parenting Burnout(Table 1 참조).

요인추출단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성분 분석,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요인은 연구자의 의도에 적합하게 총 4가지로 추출되었다. 각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 간에는 <표 2>에서와 같이 판별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분석을 위해 설정된 항목들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가를 분석하는 KMO(Kaiser-Mayer-Olkin)값도 .73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선정이 양호하다고 진단할 수 있다.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이용된 측정도구는 Cronbach's α 를 이용하였다. 사회과학에서 α 값이 .6이상이면 척도의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Nunnally, 1978).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655~.828, 전체 Cronbach's α 값이 .651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소진요인분석

구분	성분
나는 저녁이 되면 완전히 지쳐있음을 느낀다.	.828
나는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완전히 지쳤다.	.783
나는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있어 정서적으로 지쳐있음을 안다	.749
나는 아침에 일어나 자녀를 돌볼 생각에 피곤함을 느낀다.	.737
나는 하루 종일 자녀를 돌보는 일에 긴장되어 있다.	.706
나는 자녀를 돌보는 일에 대해 더욱 냉소적이 되었다.	.502
고유값: 3.923 설명량: 22.056 누적설명량: 22.056 Chronbach's α : .828	
나는 자녀를 돌보는 일을 효과적으로 한다는 자신감이 있다.	.769
나는 자녀를 돌보는 일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749
나는 현재 자녀를 돌보는 일과 관련하여 가치 있는 많은 일들을 이뤄왔다.	.741
내 생각에 자는 자녀를 잘 돌본다.	.680
나는 현재 자녀를 돌보는 일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	.619
고유값: 2.505 설명량: 18.082 누적설명량: 40.138 Chronbach's α : .777	
나는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있어 소극적이다.	.847
나는 현재 자녀를 돌보는 일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827
나는 자녀를 돌보는 것과 관련하여 무엇을 성취 했을 때 기쁨 을 느낀다.	-.487
고유값: 1.699 설명량: 13.661 누적설명량: 53.799 Chronbach's α : .655	
나는 자녀를 돌보는 일에 중요성이 의심스럽다.	
고유값: 1.054 설명량: 7.409 누적설명량: 61.208 Chronbach's α : .905	
전체 Chronbach's α : .651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0.73, Bartlett의 구형성 검증=522.757, df=105,p= .000	

양육스트레스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적재치가 .40 이하인 항목은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며, 요인의 구분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 1이상을 요인으로 추출되도록 하였고, 요인분석방법은 요인추출단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성분 분석,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요인은 연구자의 의도에 적합하게 총 2가지로 추출되었다. 각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 간에는 <표 3>에서와 같이 판별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분석을 위해 설정된 항목들의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가를 분석하

는 KMO(Kaiser-Mayer-Olkin)값도 .807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선정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892~.924, 전체 Cronbach's α 값이 .941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양육스트레스 개념타당도

구분	성분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의 여유가 없다	.834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다.	.829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770
시간에 맞춰 외출하기 위해 아이를 챙기는 일이 어렵다	.743
아이와 함께 외출했을 때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707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646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638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다.	.634
아이를 돌보느라 다른 집안일을 할 수가 없다.	.630
아이 때문에 모임에 가면서도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20
아이가 태어난 후 퇴근 후 밀려있는 집안일이 짜증스럽다.	.593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546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531
요즈음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527
아이가 집을 너무 어지럽힌다.	.512
아이를 매일 다른 사람에게 맞기고 출근하기가 어렵다.	.5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505
양육비용이나 탁아비용이 부담스럽다	.440
고유값: 11.536 설명량: 26.497 누적설명량: 26.497 Chronbach's α : .924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이를 거칠게 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795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얼굴이나 손이 더러워서 화가 난 적이 있다.	.754
아이가 아픈 것을 직장에 다니는 엄마 탓으로 돌리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729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귀저귀가 젖은 채로 있어서 화가 난적이 있다.	.705
아이의 잘못을 직장에 다니는 엄마 탓으로 돌리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	.705
다른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동안 다칠까봐 걱정이 된다.	.695
내가 부모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634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597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527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507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470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가 않다	.452
근무하는 동안 아이에게 갑작스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가보지 못해 안타까웠던 적이 있다.	.449
고유값: 3.371 설명량: 21.59 누적설명량: 48.087 Chronbach's α : .892	
전체 Chronbach's α 0.941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0.80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1615.584, df=465, p=0.000	

4.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

다. <표 4>는 어머니양육스트레스와 지친상태간의 상관계수는($r=.735$), 소진 전체 상관계수는($r=.604$)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양육스트레스와 지친상태 상관계수는($r=.459$), 소진 전체 상관계수는($r=.440$)로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소극적 태도 상관계수는($r=.300$)로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지친상태 상관계수는($r=.501$)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소극적 태도 상관계수는($r=.327$), 소진 전체($r=.458$)로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양육스트레스 상관계수는($r=.737$), 타인양육스트레스 상관계수는($r=.888$)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 환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설정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변수	지친상태	자신감상실	소극적태도	고갈	소진전체	어머니양육스트레스	타인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전체
지친상태	1							
자신감상실	.175	1						
소극적 태도	.269(**)	.234(*)	1					
고갈	.001	-.052	.156	1				
소진전체	.813(**)	.623(**)	.600(**)	.114	1			
어머니양육스트레스	.735(**)	.141	.189	.015	.604(**)	1		
타인양육스트레스	.459(**)	.107	.300(**)	.103	.440(**)	.626(**)	1	
양육스트레스전체	.501(**)	.071	.327(**)	-.006	.458(**)	.737(**)	.888(**)	1

* $p<.05$; ** $p<.01$; *** $p<.001$

IV.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호흡기질환 환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는 소진을 종속변수로 하여 검증한 것으로 통제변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투입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호흡기질환 환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

가설 1-1. 호흡기질환 환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지친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5> 에서

회귀식은($R^2=.544$, $F=43.483$, $p<.001$)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어머니양육스트레스($\beta=.736$, $p<.001$)는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양육스트레스가 지친상태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692	.227		3.048	.003		
어머니양육스트레스	.669	.092	.736	7.256	.000***	.608	1.644
타인양육스트레스	.003	.092	.003	.028	.978	.608	1.644
$R^2=0.544$, $F=43.483$, $p=.000$ ***							

* 종속변수: 지친상태 ***; $p<.001$

가설 1-2. 양육스트레스는 자신감 상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6>에서 회귀식은($R^2=.02$, $F=.737$, $p>.05$)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양육스트레스가 자신감 상실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2.401	.259		9.262	.000		
어머니양육스트레스	.074	.105	.105	.706	.482	.608	1.644
타인양육스트레스	.035	.106	.049	.328	.744	.608	1.644
$R^2=0.02$, $F=0.737$, $p=.482$							

* 종속변수: 자신감 상실

가설 1-3. 양육스트레스가 소극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7>에서 회귀식은($R^2=.099$, $F=4.012$, $p<.05$)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양육스트레스가 소극적태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1.44	.276		5.215	.000		
자기양육스트레스	.102	.112	0.13	0.911	.365	.608	1.644
타인양육스트레스	.171	.113	0.217	1.522	.132	.608	1.644
$R^2=0.099$, $F=4.012$, $p=.022$ *							

* 종속변수: 소극적 태도 *; $p<.05$

가설 1-4. 양육스트레스는 고갈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8>에서 회귀식은($R^2=.099$, $F=4.012$, $p<.05$)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양육스트레스가 고갈상태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2.503	.265		9.442	.000		
어머니양육스트레스	-.075	.108	-.104	-0.7	.486	.608	1.644
타인양육스트레스	.128	.108	.177	1.189	.238	.608	1.644
$R^2=0.099$, $F=4.012$, $p=.022^*$							

* 종속변수: 고갈상태 *: $p<.05$

가설 1-5. 양육스트레스는 소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9>에서 회귀식은($R^2=.384$, $F=22.797$, $p<.001$)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수별로 보면 어머니양육스트레스($\beta=.553$, $p<.001$)는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양육스트레스가 소진 전체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1.532	.161		9.499	.000		
어머니양육스트레스	.308	.065	0.553	4.698	.000***	.608	1.644
타인양육스트레스	.055	.066	0.099	0.843	.402	.608	1.644
$R^2=0.384$, $F=22.797$, $p=.000***$							

* 종속변수: 소진 전체 ***: $p<.001$

2. 최종학력, 월수입, 직업유무 통제 후 양육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

가설 2-1. 연령, 최종학력, 월수입, 직업유무 통제 후 양육스트레스는 지친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0>에서 회귀식은($R^2=.024$, $F=.433$, $p>.05$)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회귀분석에 어머니양육스트레스, 타인양육스트레스를 추가한 후 지친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R^2=.551$, $F=14.106$, $p<.001$)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어머니양육스트레스($\beta=.742$, $p<.001$)는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양육스트레스가 지친상태에 미치는 영향

모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1	(상수)	2.653	.749		3.544	.001		
	나이	-.015	.020	-.092	-.757	.452	.935	1.070
	최종학력	.146	.138	.128	1.055	.295	.938	1.066
	월수입	.025	.085	.036	.296	.768	.955	1.047
	직업보유 더미	-.011	.172	-.008	-.066	.947	.890	1.123
R ² =0.024, F=0.433, p=.785								
2	(상수)	.513	.609		.841	.403		
	나이	.003	.015	.016	.183	.855	.824	1.213
	최종학력	-.044	.098	-.039	-.45	.654	.877	1.140
	월수입	.052	.059	.073	.88	.382	.949	1.053
	직업유무 더미	.039	.119	.028	.323	.747	.870	1.149
	어머니양육스트레스	.675	.095	.742	7.085	.000***	.593	1.687
	타인양육스트레스	.011	0.10	.012	.108	.915	.537	1.861
R ² =0.551, F=14.106, p=.000***								

* 종속변수: 지친상태 ***:p<.001

가설 2-2. 나이, 최종학력, 월수입, 직업보유 통제 후 양육스트레스는 자신감 상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1>에서 회귀식은(R²=.057, F=1.076, p>.05)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회귀분석에 어머니양육스트레스, 타인양육스트레스를 추가한 독립변인이 자신감 상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R²=.067, F=.821, p>.05)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양육스트레스가 자신감 상실에 미치는 영향

모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1	(상수)	3.004	.573		5.240	.000		
	나이	-.014	.015	-.106	-.885	.379	.935	1.070
	최종학력	.142	.106	.160	1.342	.184	.938	1.066
	월수입	-.089	.065	-.161	-1.368	.176	.955	1.047
	직업보유 더미	.109	.131	.101	.8280	.410	.890	1.123
R ² =0.057, F=1.076, p=.375								

<표 11> 양육스트레스가 자신감 상실에 미치는 영향(계속)

모형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2	(상수)	2.815	.685		4.111	.000		
	나이	-.012	.017	-.096	-.752	.454	.824	1.213
	최종학력	.125	.111	.140	1.126	.264	.877	1.140
	월수입	-.087	.066	-.157	-1.317	.192	.949	1.053
	직업보유 더미	.116	.134	.108	.8680	.388	.870	1.149
	어머니양육스트레스	.078	.107	.110	.7290	.469	.593	1.687
	대리양육스트레스	-.013	.113	-.019	-0.117	.907	.537	1.861
R ² =0.067, F=0.821, p=.558								

* 종속변수: 자신감상실

가설 2-3. 연령, 학력, 월수입, 직업보유 통제 후 양육스트레스유형이 소극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2>에서 회귀식은(R²=.12, F=2.428, p>.05)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최종학력(β=.237, p<.05)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월수입(β=-.248, p<.05)은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1단계 회귀분석에 어머니양육스트레스, 타인양육스트레스를 추가한 독립변인이 소극적 태도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회귀식은(R²=.202, F=2.907, p<.05)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양육스트레스가 소극적 태도 상태에 미치는 영향

모형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1	(상수)	1.771	0.615		2.878	.005		
	나이	.006	.017	.043	.374	.709	.935	1.07
	최종학력	.235	.114	.237	2.065	.043*	.938	1.066
	월수입	-.153	.070	-.248	-2.177	.033*	.955	1.047
	직업보유 더미	.124	.141	.104	.882	.381	.890	1.123
R ² =0.12, F=2.428, p=.056								
2	(상수)	.783	.704		1.113	.270		
	나이	.019	.017	.135	1.138	.259	.824	1.213
	최종학력	.158	.114	.159	1.386	.170	.877	1.140
	월수입	-.139	.068	-.226	-2.045	.045*	.949	1.053
	직업보유 더미	.108	.138	.091	.7870	.434	.87	1.149
	자기양육스트레스	.085	.110	.108	.7730	.442	.593	1.687
	타인양육스트레스	.179	.116	.227	1.548	.126	.537	1.861
R ² =0.202, F=2.907, p=.014*								

* 종속변수: 소극적태도*: p<.05

가설 2-4. 연령, 최종학력, 월수입, 직업보유 통제 후 양육스트레스는 고갈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귀식은($R^2=.071$, $F=1.351$, $p>.05$)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회귀분석에 어머니양육스트레스, 대리양육스트레스를 추가한 독립변인이 고갈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R^2=.104$, $F=1.34$, $p>.05$)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양육스트레스가 고갈상태에 미치는 영향

구 번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 계	VIF
1	(상수)	3.018	.582		5.188	.000		
	나이	.009	.016	.066	.5570	.579	.935	1.070
	최종학력	-.158	.108	-.173	-1.465	.147	.938	1.066
	월수입	-.103	.066	-.181	-1.549	.126	.955	1.047
	직업보유 더미	.096	.133	.088	.723	.472	.89	1.123
$R^2=0.071$, $F=1.351$, $p=.260$								
2	(상수)	2.515	.686		3.668	.000		
	나이	.018	.017	.135	1.073	.287	.824	1.213
	최종학력	-.192	.111	-.211	-1.731	.088	.877	1.140
	월수입	-.095	.066	-.168	-1.436	.156	.949	1.053
	직업보유 더미	.069	.134	.063	.516	.607	.870	1.149
	어머니양육스트레스	-.066	.107	-.092	-.620	.537	.593	1.687
타인양육스트레스	.176	.113	.242	1.556	.124	.537	1.861	
$R^2=0.104$, $F=1.34$, $p=.252$								

* 종속변수: 고갈상태

가설 2-5. 연령, 학력, 월수입, 직업보유 통제 후 양육스트레스는 소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4>에서 회귀식은($R^2=.059$, $F=1.12$, $p>.05$)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회귀분석에 어머니양육스트레스, 타인양육스트레스를 추가한 독립변인이 소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R^2=.406$, $F=7.847$, $p<.001$)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양육스트레스($\beta=.555$, $p<.001$)는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양육스트레스가 소진 전체에 미치는 영향

변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1	(상수)	2.618	.45		5.823	.000		
	나이	-.009	.012	-.087	-.73	.468	.935	1.070
	최종학력	.142	.083	.203	1.712	.091	.938	1.066
	월수입	-.057	.051	-.131	-1.114	.269	.955	1.047
	직업보유 더미	.063	.103	.075	.612	.543	.89	1.123
R ² =0.059, F=1.12, p=.354								
2	(상수)	1.468	.429		3.421	.001		
	나이	.002	.010	.020	.191	.849	.824	1.213
	최종학력	.043	.069	.061	.613	.542	.877	1.140
	월수입	-.042	.041	-.098	-1.024	.309	.949	1.053
	직업보유 더미	.081	.084	.095	.959	.341	.870	1.149
	어머니양육스트레스	.309	.067	.555	4.601	.000***	.593	1.687
	대리양육스트레스	.048	.071	.085	.672	.504	.537	1.861
R ² =0.406, F=7.847, p=.000***								

* 종속변수: 소진 전체 ***: p<.001

IV. 논의 및 결론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부모가 되어서 부모역할을 제대로 해낸 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호흡기 질환은 소아기 질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생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면역계의 불완전한 발달과 외부와의 접촉증가로 감염성에 이환되기 쉽다(2005, 홍창의). 호흡기질환에 걸린 환아 어머니들이 환아를 돌보면서 겪는 환아 어머니양육스트레스도와 소진에 대해 살펴보고, 양육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어 이를 바탕으로 환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연구에 참여한 106명의 호흡기 질환 환아 어머니 대부분(89%)이 주 양육자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이 과반수(72.61%)가 넘고 취업모가 27.4%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양육으로 인해 어머니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스트레스 유형에서 어머니양육스트레스가 대리양육스트레스 보다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환아 어머니 역할에 대한 부담감, 자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각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환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이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환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소진수준을 높이는데 강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호흡기질환 환아 어머니양육스트레스 평균은 2.882점으로 김현미(2004)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보다 2.4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스트레스는 2.662점, 소진에서 하위변인 지

친상태는 2.695점, 자신감 상실은 2.732점, 고갈상태는 2.66점, 소진 전체가 2.609점, 소극적태도가 2.214점으로 나타났다.

환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지친상태와 소진전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양육스트레스는 지친상태, 소진 전체 사이에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소극적태도 사이에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양육스트레스가 지친상태, 고갈상태, 소극적 태도, 소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지친상태, 고갈상태, 소극적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소진에 빠져들지 않도록 심리 상담과 같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타인양육스트레스도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에 따른 시간적인 부족과 타인 양육으로 인해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간 계속 되는 스트레스가 소진을 야기한다는 사회사업가를 대상으로 한 김성윤(1996)의 연구결과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심리적 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홍승희(2009), 남미영(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라는 대상에게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소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를 검증함으로써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설득력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신감 상실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최종학력, 월수입, 직업유무 통제 후 어머니양육스트레스는 소진 전체와 하위변인 지친상태, 소극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서 최종학력, 월수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안정될수록 역할수행에 자신감을 갖고 있어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의 정도가 낮다고 본다. 송미혜(2006)의 연구에서 월수입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양육효능감과 의사소통 전체 영역평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현경(2002)의 연구에서도 자녀양육에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인 자신감 상실, 고갈상태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의의는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를 조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첫째,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이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가져 온 것은 그만큼 호흡기환자 어머니의 소진 확률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환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소진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의 소진은 어머니뿐만 환아와 한 가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둘째,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의 양육소진은 환아와 한 가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활발히 행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호흡기질환 환자 어머니의 양육소진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소진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조절 변인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소진에 대한 소진예방 중재안과 소진을 감소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넷째, 호흡기질환 건강관련 정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요구되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소진감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부모자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 스트레스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리진. 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문경. 2002. 4-6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숙. 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윤. 1996. 직무 환경이 사회사업가의 burn-out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진. 2010. 소아중증하기도 감염증 환아에서 호흡기바이러스 분포. 질병관리본부.
- 김자윤, 안동현, 고복자, 이영교, 이효경, 황혜순. 2002. 소아정신과 환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지지체계. 신경정신학회. 41(6): 1130-1141.
- 남미영. 2010. 특수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교사 효능감의 역할.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기자. 2006.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숙, 박연환, 김윤미. 2009. 3세 미만 유아를 둔 도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 스트레스 연구. 17(4): 349-357.
- 손지영, 박연홍, 박미희, 손은사, 박진영, 김순희. 2008.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이 학령전기 환자의 지식 및 행위에 미치는 효과. 임상간호연구. 14(1): 173-185.
- 송미혜. 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숙재, 정문자. 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학회지. 19(1): 27-42.
-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 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효섭. 2005. 소아암. 서울: 대한교과서.
- 윤혜미. 1991.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만족, 이직의도,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18: 83-116.
- 이정순. 2003. 유아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열린 유아 교육연구. 8(2): 183-199.
- 이정희. 2000. 어머니가 인지한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원. 2003. 영유아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7(2): 207-216.
- 장성오, 김용미.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소진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발달르 프교육연구. 3(1): 91-111.
- 임원균, 오은경. 2014.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예측요인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11(11): 173-200.
- 장운원. 2000. 중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위기감.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현경. 2002. 발달장애아 부모의 스트레스 체험과 사회적 지지의 수용 및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친희영. 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은아, 김보영, 이상민, 신호정. 2011.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소진 및 자녀학업소진의 관계. 한국교육학 연구. 17(1): 270-293.
- 함정숙. 2012. 가족결속력, 모아애착, 양육효능감이 유아를 위한 어머니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승희. 2009. 지적장애 특수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창의. 1997. 소아과학 서울: 대한교과서.
- 홍창의. 2002. 소아과학 서울: 대한교과서.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31-40.
- Boyce, T. G., B. G. Mellen, E. F. Mitchel, P. F. Wright, and M. R. Griffin. 2000. Rates Of Hospitalization for Respiratory Syncytial Virus Infection Among Children In Medicaid. *Journal Of Pediatric*. 137(6): 865-870.
- Cherniss, C. 1980. *Staff Burnout, Job Stress in The Human Servic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Cmic, K. A. and M. T. Greenberg.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 Development*. 61: 1628-1637.
- Corey, M. S. and G. Corey. 2002. *Becoming a Helper*. CA: Brooks/Cole.
- Freudenberger, H. J. 1974. Burn-Out. *Journal of Social*. 30(1): 159-165.
- Freymouth, F., A. Vabret, L. Legrand, N. Eterradossi, F. Lafay-Delaire, and J. Brouard. 2003. Presence Of The New Human Metapneumovirus In French Children With Bronchiolitis. *Pediatric Infection Disease Journal*. 22(1):92-94.
- Hall Lazarus, R. S. and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Lazarus, S. and S. Folkman. 1984. Stress Proc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07-113.
- Mann, M. B. and K. R. Thornberg.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 Maslach, C. 1982. Burnout. *Human Behavior*. 2: 91-113.
- Mathers, C. D., A. D. Lopez, and C. J. L. Murray. 2012. The Burden of Disease and Mortal by Condition: Data, Methods, and Results for 2001. A. D. Lopez, C. D. Mathers, M. Ezzati, D. T. Jamison, and C. J. L. Murray. eds. *Global Burden of Disease and Risk Factors*. Washington: World Bank.
- Michelow, I. C., K. Olsen, J. Lozano, N. K. Rolins, L. B. Duffy, and T. Ziegler. 2004. Epidemiology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ommunity-Acquired Pneumonia in Hospitalized Children. *Pediatric Journal*. 113(4): 701-707.
- Min-Hyang Park. 2014. The Effect of Mother's Health Promoting Behavior for Infants and Toddlers on Parenting Burnout.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18(3): 287-308.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New York: McGraw-Hill.
- Papenburg, J., M. E. Hamelin, N. Ouhoumane, J. Carbonneau, M. Ouakki, and F. Raymond. 2012. Comparison of Risk Factors for Human Metapneumovirus and Respiratory Syncytial Virus Disease Severity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Infection*. 206(2): 178-189.
- Skovholt, T. M.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MA: Allyn & Bacon.
- Van den Hoogen, B. G., J. C. de Jong, J. Groen, T. Kuiken, R. de Groot, and R. A. Fouchi. 2001. A Newly Discovered Human Pneumovirus Isolated From Young Children with Respiratory Tract Disease. *Nature Medicine*. 7: 719-724.
- Whaley, L. F. and D. Wong. 1999. *Nursing Care of Infants and Children(6th ed)*. St. Louis Mosby.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간호조직 관리와 갈등관리, 아동의 건강문제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간호조직 내 의사소통능력과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과의 관계(2013)가 있고 주요 저서로는 신생아중환아 임상가이드(2013)등이 있다(jalhand98@chsu.ac.kr).